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수성구 편입 추진」 반대 결의안

[전홍배 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2300 |
|----------|------|

발의연월일 : 2023. 4. 17.

발의의원 : 전홍배 의원 등 12인

1. 주문

가. 행정구역의 확정 및 변경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타진하고, 관과 주민의 원활한 교류를 기반으로 진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진행되고 있는 「대구시의 일방적인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추진」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2. 제안이유

가. 지난 3월 대구시는 달성군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을 제기하였음.

나.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관 주도의 의제 설정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타진하고, 관과 주민의 원활한 소통을 전제로 하는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함.

다. 대구시의 주장은 일방적인 정책으로 달성군의 교육, 문화·관광, 일자리, 복지·건강 등의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하고, 행정구역 편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 또한 새롭게 수립되어야 함.

라.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에 대해 대구시와 수성구는 그 어떤 준비나 계획이 마련되어있지 않음. 가창면의 발전에 관한 비전이 담보되지 않는 정책은 가창면의 주민들에게는 아무런 이득 없는 정책임.

마. 이에 달성군의회 의원은 27만 달성군민과 더불어 「달성군 가창면 수성구 편입추진」 정책에 유감을 표하고 반대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음.

3. 결의문 : 붙임.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수성구 편입 추진」 반대 결의문

- 달성군 의회는 대구시의 일방적인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 추진을 반대한다.
- 민주주의의 기초로서 성숙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서는 관 주도의 의제 설정보다는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타진하고, 관과 주민의 원활한 소통을 전제로 하는 절차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 행정구역의 변경은 충분한 논의와 함께 주민의 화합과 통합을 목적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주민의 의견 수렴과 숙의를 거치지 않은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이라는 의제는 주민들의 혼란만 가져왔다.
- 대구시는 지금부터라도 일부 소수의 의견을 반영하기보다는 27만 달성군민 전체의 뜻을 반영하여야 할 것이다.
- 대구시의 일방적인 정책으로 달성군의 교육, 문화·관광, 일자리, 복지·건강 등의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하고, 행정구역 편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계획 또한 새롭게 수립해야 하는 행정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
- 가창면의 수성구 편입에 대해 대구시와 수성구는 그 어떤 준비나 계획이 마련되어있지 않다. 가창면의 발전에 관한 비전이 제대로 담보되지 않는 가운데 편입을 추진한다면, 주민 세수 부담 증가, 행정 서비스 축소·폐지, 교육, 복지, 농촌지원 혜택의 감소 등 가창 주민들은 실생활에 많은 불편을 겪게 될 것이다.

- 달성군의회 의원은 27만 달성군민과 더불어 「달성군 가창면 수성구 편입추진」 정책에 유감을 표하고 이번 결정에 대하여 달성군 주민의 화합과 통합을 위배하는 행위는 인정할 수 없으며, 주민을 위한 가치를 지향할 수 있도록 의회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이다.

2023. 4. 18.

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